

##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 인식과 공동사회 가치의 차이

한 덕 웅<sup>†</sup>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김 금 미

성균관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한국사회에서 현재 한국문화에 관한 인식과 아울러 장래 공동사회의 중요한 가치에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합치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전국 6개 지역의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한국문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가치들에 관한 인식과 장래 한국사회에서 살기좋은 공동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가치들에 관한 인식에서 남녀간에 합치되거나 차이를 보인 내용을 찾아내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장차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향점을 논의하였다. 전국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1,646명이 239문항에 응답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현재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과 여성이 67%의 문항들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성별에 따른 차별과 이중기준이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미래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가치 문항들은 75.3%에 이르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한국문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가 되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별, 여성, 한국문화, 공동사회가치, 유교, 양성평등

---

<sup>†</sup> 교신저자 : 한덕웅,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번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dwhahn@dragon.skku.ac.kr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한국문화의 특징을 인식하고, 장차 한국사회에서 한국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한국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는 점이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한다. 특히 장차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점과 아울러 남성과 여성이 각각 노력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어서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집단간 관계를 연구하려면 한국문화의 어떤 특징들이 이 관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과제가 먼저 연구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사회에 뿌리를 두고 여성심리학을 확립하려면 현재 양성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이 어떤 한국문화의 배경에서 파생되고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 과제를 다루려면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의 일부로서 한국사회에서 양성관계가 형성되고 전개된 역사에 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먼저 현존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 남성과 여성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내는데 목표를 둔다. 이 과제를 다루게 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양성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토대로 특히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징들을 인식하는데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한국문화의 특징들이 어떤 역사적 경로를 통해서 전개되었는지도 연구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문화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는 과제와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장차 한국의 공동사회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알아보고 싶다. 이 과제를 다루게 되면 장차 바람직한 공동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한덕웅과 공동연구자들(한덕웅, 1994; 한덕웅 · 강혜자, 2000; 한덕웅, 2002)이 전국의 성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남녀간의 편견이나 사회적 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되었다. 이 사실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성불평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에는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한덕웅(2003c)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성인들 가운데 다수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이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관련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이처럼 생각하는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하고 이러한 성차별과 편견이 유교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고 인식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갈등은 한국문화에서 오랜 역사에 걸쳐서 형성되었다. 이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의 관점에서 양성관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의 여성학계나 여성운동 분야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파악하는 관점은 대부분 서구 문화에서 기원한 여성주의 시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결과로 특

별히 한국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 양식을 무시하거나, 혹은 서구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기존에 서구사회에서 대두된 여성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성관계의 특징을 한국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과제를 소홀하게 다루었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다루려면 연구자의 관점보다 일반인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별에 따라서 한국문화의 인식에서 어떤 합치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관점에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성별집단간 갈등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조사연구를 통해서 이 갈등이 형성된 한국문화의 맥락 요인들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남녀간의 차별과 편견, 고정관념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인식 하에 1999년 2월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1월에는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기관과 단체들에서 성별에 따른 평등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식을 확산시키려면 먼저 현재 한국인들이 양성관계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양성평등의 의식을 향상시키려면 현재 한국문화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을 알아내어서 이론에 근거를 두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한국문화에 조화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과 전술이 개발되면 실제로 양성평등의 의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김금미·한영석, 2003). 만약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심리학 이론이 결여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합의가 부족하다면, 목표가 있더라도 어떻게 접근할지 알 수 없고, 비록 양성평등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동원되더라도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최종 목표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 과제를 다루려면 먼저 현재 한국사회에서 남녀차별과 남녀불평등이 형성된 한국문화의 근원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서 어떤 합의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현재 한국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며 또한 미래 한국사회의 문화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한덕웅(2003ab)의 연구와 일관되게 예비조사를 통하여 한국문화와 아울러 동서양의 다른 문화들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된 요소들을 포괄하고 이 가운데 한국인들이 한국문화의 특징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내용들을 간추렸다. 그리고 본조사에서는 이 간추린 문항들로 조사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 때 조사의 문항들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현재 한국문화의 특성과 아울러 장차 한국사회를 살기 좋은 공동사회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의 두 측면에서 성별에 따라서 어떤 합치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살기 좋은 한국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남녀가 모두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을 논의할 때 여성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를 단편적으로 조사하거나,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를 논의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차재호, 1994; 최상진, 2000). 그러므로 현재까지 각 성별의 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현재 한국 문화에 관하여 어떻게 보는지 비교하거나 이 특징들이 장차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구축하는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하는 과제는 소홀하게 다루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이 이 과제를 다룬 경우에도 연구자가 각자 지니는 주관적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장차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한국문화의 요소들이나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요소들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차재호, 1994; 최상진, 2000).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접근 역시 쓸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어느 정도 합치되는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장차 바람직한 공동사회의 문화를 설계하기 위하여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들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들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공통으로 혹은 각각 현재 한국사회에서 한국문화를 구성한다고 인식하는 특징들을 알아내고, 이 가운데 각 성별에 따라서 장래 한국문화를 설계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특징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장래 한국문화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는 가치, 덕목, 성격특성들과 아울러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르게 강조하는 요소들도 알아낼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거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하는 내용을 알아내면 장차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변화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에서 공동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차 바람직한 한국문화를 설계하는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연구 방법

### 조사 문항의 구성 및 조사의 실시

조사는 한덕웅(2003c)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두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예비조사에서는 문화적 덕목, 가치, 행동, 성격특성을 조사한 연구들과 함께 필자가 여러 참고문헌들에서 수집한 내용을 포함하여 모두 499개 문항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조사에 사용한 문항들을 구성하면서 심리학 분야에서 차재호(1994), 최상진(2000), 한덕웅(1992)과 윤태림(1986), 유학이나 유학심리학 분야에서 현상운(1948/1982)과 한덕웅(2002), 그리고 사회학에서 이규태(1991)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서구에서 수행된 연구 가운데 인생관을 측정하는 Morris의 가치관 척도(한덕웅·이경성, 2003a), Rokeach의 가치척도(한덕웅·이경성, 2003b), Schwartz와 Bilsky(1987)의 가치 문항들, 그리고 Bond(1986)의 중국가치 척도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예비조사의 실시에서는 먼저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응답자가 조사에 참가한 보상으로 점수를 받고 조사에 성실하게 반응하겠다고 지원한 사람만 반응하도록 했다. 예비조사의 응답

대상자는 한국사회문화조사 339명, 공동사회가치 조사 317명으로 서울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조사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고 200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본조사에서는 먼저 예비조사에서 449개 문항에 반응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문화, 그리고 장차 한국사회에서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7점척도에서 4.50 이상의 평균으로 중요하다고 본 내용들만 가려내어 모두 239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본조사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조사의 실시에서는 전국에 소재하는 6개 지역의 대학에서 먼저 학생들이 조사의 질문지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대학생들이 부모나 가까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반응을 얻도록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은 강의시간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의 실시에는 약 30분 가량이 소요되었다. 본조사는 2002년 가을 학기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조사에서 반응한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의 종류와 반응방법**

한국문화조사에서는 “각 문항을 차례대로 하나씩 읽고 각 문항이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한국사회, 한국문화 혹은 한국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잘 나타내는지”에 대해 매우 낮다(1)부터 매우 높다(7)까지 7점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여 한국문화를 구성한다고 인식하는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동가치조사에서는 “각 문항을 차례대로 하나씩 읽고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각 문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전혀 가치없다(1)부터 극히 가치있다(7)까지 7점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여 장래 한국문화를 설계하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참여자**

각 조사는 전국의 여러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문화조사는 853명(남자 444명, 여자 409명),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는 793명(남자 401명, 여자 392명)이 참여하였다. 지역별 조사자의 수는 표 1과 같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에서 각 조사별로 남녀별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한국문화와 공동가치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한국문화의 측면과 미래에 공동사

표 1. 질문지 유형별 조사의 대상(%)

조사	성별	서울	대전	대구	전주	광주	진주	전체
한국 사회 문화	남성	235(27.55)	39( 4.57)	39( 4.57)	49( 5.74)	35( 4.10)	47( 5.51)	444( 52.05)
	여성	186(21.81)	46( 5.39)	25( 2.93)	50( 5.86)	54( 6.33)	48( 5.63)	409( 47.95)
	전체	421(49.36)	85( 9.96)	64( 7.50)	99(11.61)	89(10.43)	95(11.14)	853(100.00)
공동 사회 가치	남성	215(27.11)	51( 6.43)	39( 4.92)	47( 5.93)		49( 6.18)	401( 50.57)
	여성	216(27.24)	40( 5.04)	35( 4.41)	50( 6.31)		51( 6.43)	392( 49.43)
	전체	431(54.35)	91(11.48)	74( 9.33)	97(12.23)		100(12.61)	793(100.00)

회 가치의 측면에서 각각 남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합의하는 요소들과 아울러 유의한 차이가 나서 합의하지 않는 요소들을 각각 내려내었다.

### 결과 및 논의

####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의 인식과 공동사회 가치

조사연구의 결과에서 먼저 남성과 여성이 한국문화와 장래 바람직한 공동사회의 가치로서 각각 중요하다고 평가된 항목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재 한국문화의 특징이거나 장래 살기 좋은 한국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공동사회의 가치들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사하게 반응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문항들은 전체 239개 가운데 각각 67.3%와 75.3%였다. 남성과 여성이 한국문화의 인식에서는 59개 문항(32.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공동사회의 가치에서는 78개 문항들(32.7%)에 대한 중요도 평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의 장래 공동사회의 가치에 관한 반응보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간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들 가운데 먼저 한국문화의 특징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먼저 한국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중요한 문항들을 가려보면 표 2와 같다. 한국문화를 특징짓는 측면에서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들로는 남녀차별( $M =$

5.19), 남아선호( $M = 5.36$ ), 남존여비( $M = 4.94$ ), 남성지배( $M = 5.04$ ), 여성정절( $M = 4.74$ ), 여성정조( $M = 4.79$ ), 처녀순결( $M = 4.71$ ), 순결( $M = 4.68$ ), 가부장제도( $M = 5.28$ ), 보수주의( $M = 5.03$ ), 완고성( $M = 4.86$ ), 고지식하다( $M = 4.87$ ), 세대갈등( $M = 5.10$ ), 타인에 신경쓴다( $M = 5.36$ ), 주위사람의 식( $M = 5.29$ ), 점보기( $M = 4.97$ )였다. 이 가운데 주위사람의식, 타인에 신경쓴다, 점보기, 세대갈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남녀차별에 관련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들 가운데 남녀차별, 남존여비, 남성지배, 가부장제도 및 남아선호는 남녀의 집단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위나 세력의 차이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정절, 여성정조, 처녀순결, 순결은, 남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덕목이 요구되지 않는 우리사회의 성별에 따른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보수주의, 완고성, 고지식함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반응을 보인 배경에도 현재 한국문화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한덕웅(2003c)이 유교가 한국인의 특성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본 유교문화의 위계구조 연구에 따르면 이 남녀차별은 크게 두 단면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순결, 여성정조 등은 여성지조를 강조한 문항들이었고, 남녀차별, 남아선호, 남존여비 등은 남성우위에 관한 문항들이었다. 이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남성우위의 점수는 모두 7점 척도에서 평균에 해당하는 4점보다 높아서 대부분 5점을 상회하지만 여성지조의 문항들의 점수는 모두 5점에 미치지 못한 점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여성지조보다 남성우위가 한국사회를 더 특징짓는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비

표 2. 한국문화에 관한 인식에서 성별 차이를 보인 문항들

문항	남자		Sig.	문항	여자		Sig.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일부일체제	5.73 (1.30)	5.38 (1.34)	0.00 ***	공손한 언행	4.51 (1.23)	4.34 (1.12)	0.05 *
정이 많다	5.43 (1.09)	5.27 (1.03)	0.03 *	의욕적 생활	4.50 (1.05)	4.28 (1.01)	0.05 *
이익추구	5.43 (1.05)	5.27 (1.10)	0.03 *	어린이보호	4.46 (1.34)	4.22 (1.30)	0.01 **
입신양명	5.31 (1.12)	5.11 (1.09)	0.01 **	평화	4.44 (1.15)	4.26 (0.98)	0.02 *
부귀	5.25 (1.15)	5.07 (1.11)	0.02 *	스승존경	4.43 (1.31)	4.17 (1.18)	0.00 ***
조상제사	5.25 (1.29)	5.08 (1.28)	0.05 *	인간존중	4.41 (1.14)	4.28 (1.04)	0.09 †
집단이기주의	5.21 (1.18)	5.07 (1.25)	0.10 †	인륜도덕	4.41 (1.15)	4.26 (1.06)	0.05 *
타인에 신경쓴다	5.16 (1.15)	5.36 (1.13)	0.01 **	도덕성	4.40 (1.24)	4.23 (1.04)	0.03 *
부모존경	5.16 (1.19)	4.76 (1.11)	0.00 ***	즐거운 생활	4.39 (1.09)	4.26 (1.02)	0.07 †
주위사람의식	5.15 (1.21)	5.29 (1.18)	0.08 †	나라의 안전	4.37 (1.23)	4.15 (1.13)	0.01 **
장래매장제도	5.14 (1.22)	4.92 (1.39)	0.01 **	도덕규범	4.37 (1.20)	4.23 (1.07)	0.09 †
성묘	5.13 (1.20)	4.98 (1.22)	0.07 †	처녀순결	4.34 (1.51)	4.71 (1.43)	0.00 ***
우정	5.12 (0.98)	4.88 (0.90)	0.00 ***	여성정조	4.32 (1.42)	4.79 (1.34)	0.00 ***
가부장제도	5.08 (1.15)	5.28 (1.18)	0.01 **	여성정절	4.32 (1.48)	4.74 (1.36)	0.00 ***
효도	5.04 (1.12)	4.77 (1.13)	0.00 ***	개인자유	4.30 (1.18)	4.02 (1.13)	0.00 ***
부모효도	4.97 (1.16)	4.75 (1.04)	0.00 ***	너그럽다	4.28 (1.15)	3.99 (1.11)	0.02 *
세대갈등	4.93 (1.10)	5.10 (1.03)	0.02 *	자유	4.28 (1.22)	3.96 (1.18)	0.00 ***
허물없는 친구	4.92 (1.08)	4.66 (1.11)	0.00 ***	옳고 그름을 가린다	4.26 (1.18)	4.04 (1.08)	0.00 ***
보수주의	4.89 (1.19)	5.03 (1.08)	0.06 †	사회안정	4.23 (1.03)	4.07 (1.01)	0.03 *
노인공경	4.84 (1.18)	4.65 (1.14)	0.02 *	순결	4.22 (1.40)	4.68 (1.38)	0.00 ***
충효사상	4.84 (1.23)	4.56 (1.13)	0.00 ***	주체성	4.20 (1.15)	3.97 (1.04)	0.00 ***
친밀한 인간관계	4.82 (1.02)	4.67 (1.05)	0.03 *	민주주의	4.18 (1.14)	4.04 (1.06)	0.06 †
진정한 우정	4.81 (1.11)	4.63 (0.96)	0.01 **	관용	4.12 (1.13)	4.00 (1.00)	0.10 †
남녀차별	4.79 (1.23)	5.19 (1.32)	0.00 ***	함께 잘 사는 세상	4.11 (1.27)	3.87 (1.14)	0.00 ***
남성지배	4.74 (1.25)	5.04 (1.31)	0.00 ***	결단력	4.09 (1.07)	3.85 (1.00)	0.00 ***
예절교육	4.71 (1.21)	4.45 (1.07)	0.00 ***	용기	4.08 (1.00)	3.88 (0.93)	0.00 ***
조강지처 보호	4.68 (1.26)	4.47 (1.20)	0.01 **	자립정신	4.07 (1.19)	3.88 (1.07)	0.01 **
고지식하다	4.68 (1.13)	4.87 (1.08)	0.01 **	실천력	4.03 (1.03)	3.89 (0.96)	0.03 *
점보기	4.68 (1.46)	4.97 (1.48)	0.00 ***	행동실천	4.00 (1.10)	3.85 (1.01)	0.03 *
완고성	4.67 (0.96)	4.86 (1.00)	0.01 **	인권	4.00 (1.16)	3.81 (1.08)	0.02 *
예의바르다	4.64 (1.14)	4.50 (1.03)	0.08 †	창의성	4.00 (1.16)	3.82 (1.07)	0.02 *
남존여비	4.62 (1.32)	4.94 (1.39)	0.00 ***	독창성	3.99 (1.12)	3.78 (1.04)	0.00 ***
전통존중	4.62 (1.18)	4.45 (1.16)	0.03 *	독립심	3.98 (1.18)	3.85 (1.08)	0.09 †
부모에게 복종	4.58 (1.12)	4.42 (1.06)	0.03 *	마음수양	3.96 (1.21)	3.82 (1.04)	0.07 †
협동	4.56 (1.16)	4.34 (1.13)	0.00 ***	평등	3.95 (1.20)	3.73 (1.11)	0.01 **
지혜	4.55 (1.06)	4.43 (1.00)	0.09 †	사생활보호	3.85 (1.33)	3.60 (1.35)	0.01 **
인정있는 사회	4.55 (1.16)	4.42 (1.06)	0.09 †				

교하여 사회 지위가 낮은 사실을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로부터 여성들이 장차 한국에서 양성평등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 과제로서 여성의 사회 지위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들을 살펴보면 명예존중( $M = 4.40$ ), 공손한 언행( $M = 4.51$ ), 부모존경( $M = 5.16$ ), 자유( $M = 4.28$ ), 충효사상( $M = 4.84$ ), 이익추구( $M = 5.43$ ), 인간존중( $M = 4.41$ ), 인륜도덕( $M = 4.41$ ), 조상제사( $M = 5.25$ ), 결단력( $M = 4.09$ ), 협동( $M = 4.56$ ), 예의바르다( $M = 4.64$ ), 노인공경( $M = 4.84$ ), 관용( $M = 4.12$ ), 부모효도( $M = 4.97$ ), 진정한 우정( $M = 4.81$ ), 개인자유( $M = 4.30$ ), 함께 잘 사는 세상( $M = 4.11$ ), 나라의 안전( $M = 4.37$ ), 집단 이기주의( $M = 5.21$ ), 조강지처 보호( $M = 4.68$ ), 장례매장제도( $M = 5.14$ ), 사회안정( $M = 4.23$ ), 즐거운 생활( $M = 4.39$ ), 자립정신( $M = 4.07$ ), 입신양명( $M = 5.31$ ), 스승존경( $M = 4.43$ ), 어린이보호( $M = 4.46$ ), 지혜( $M = 4.55$ ), 평화( $M = 4.44$ ), 옳고 그름을 가린다( $M = 4.26$ ), 민주주의( $M = 4.18$ ), 정이 많다( $M = 5.43$ ), 도덕규범( $M = 4.37$ ), 부귀( $M = 5.25$ ), 남존여비( $M = 4.62$ ), 부모에게 복종( $M = 4.58$ ), 친밀한 인간관계( $M = 4.82$ ), 효도( $M = 5.04$ ), 일부일처제( $M = 5.73$ ), 예절교육( $M = 4.71$ ), 허물없는 친구( $M = 4.92$ ), 인정있는 사회( $M = 4.55$ ), 성묘( $M = 5.13$ ), 전통존중( $M = 4.62$ ), 실천력( $M = 4.03$ ), 용기( $M = 4.08$ ), 너그럽다( $M = 4.28$ ), 의욕적 생활( $M = 4.50$ ), 마음수양( $M = 3.96$ ), 사생활보호( $M = 3.85$ ), 독창성( $M = 3.99$ ), 독립심( $M = 3.98$ ) 등으로 모두 53개였다. 이 가운데 마음수양, 사생활 보호, 독창성 및 독립성에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기는 하지만 7점 척도의 평균에 해당하는 4점에는 못 미쳐서 현재 시점에서 남성들도 이 요소들이 한국문화의 특출한

특징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봄을 알 수 있다.

### 공동사회 가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인 문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장래 공동사회 가치에 대한 반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인 문항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는 ‘행복’과 ‘학력차별’ 두 가지뿐이었다. 특히 행복은 여성이 척도의 평균인 4점보다 높으면서 동시에 남성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반면에 학력차별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평균 4점 미만의 점수이면서 여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여성이 학력차별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교육 수준이 다소 낮아서 받았던 차별과도 관련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양성간에 차이가 있는 그 이외의 가치들에서는 모두 남성들이 평균이 높았다. 이에 대해서도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남성과 여성이 평균을 기준으로 척도의 평균인 4점을 초과하면서 남성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면, 이는 양성이 합의하여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의미하므로 여성이 이 가치를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이 4점 미만인 가치들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평가치를 보였다면 남성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억제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별 차이를 보인 가치들 가운데 남성의 점수가 높고 4점을 초과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족 돌보기( $M = 5.33$ ), 부모존경( $M = 5.86$ ), 부모효도( $M = 5.63$ ), 효도( $M = 5.61$ ), 부모에게 복종( $M = 4.07$ ), 부부백년해로( $M = 4.92$ ), 조강지처 보호( $M =$



표 3. 공동사회 가치에서 성별 차이를 보인 문항들

문항	남자		여자		Sig.	문항	남자		여자		Sig.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부모존경	5.86	(1.14)	5.72	(1.12)	0.08 <sup>†</sup>	학문중시	4.14	(1.39)	3.96	(1.33)	0.06 <sup>†</sup>
성실성	5.66	(1.14)	5.51	(1.19)	0.07 <sup>†</sup>	부모에게 복종	4.07	(1.49)	3.72	(1.43)	0.00 <sup>***</sup>
자유	5.65	(1.22)	5.41	(1.25)	0.01 <sup>**</sup>	절개	4.03	(1.45)	3.57	(1.55)	0.00 <sup>***</sup>
부모효도	5.63	(1.21)	5.45	(1.17)	0.03 <sup>†</sup>	입신양명	3.90	(1.48)	3.72	(1.32)	0.08 <sup>†</sup>
효도	5.61	(1.14)	5.40	(1.19)	0.01 <sup>**</sup>	자기집단 결속	3.89	(1.44)	3.70	(1.36)	0.07 <sup>†</sup>
도덕성	5.56	(1.23)	5.36	(1.20)	0.02 <sup>*</sup>	조상숭배	3.83	(1.62)	3.32	(1.52)	0.00 <sup>***</sup>
의료음	5.53	(1.17)	5.23	(1.14)	0.00 <sup>***</sup>	순결	3.82	(1.65)	3.51	(1.77)	0.01 <sup>**</sup>
진정한 우정	5.48	(1.20)	5.20	(1.21)	0.00 <sup>***</sup>	여성정절	3.81	(1.71)	3.38	(1.78)	0.00 <sup>***</sup>
인정있다	5.45	(1.19)	5.24	(1.23)	0.01 <sup>**</sup>	의식/의례 지키기	3.74	(1.37)	3.52	(1.36)	0.02 <sup>*</sup>
인격완성	5.43	(1.13)	5.27	(1.28)	0.07 <sup>†</sup>	성묘	3.70	(1.43)	3.21	(1.40)	0.00 <sup>***</sup>
행동실천	5.41	(1.09)	5.32	(1.19)	0.08 <sup>†</sup>	조상제사	3.70	(1.55)	3.27	(1.47)	0.00 <sup>***</sup>
신의	5.40	(1.23)	5.19	(1.18)	0.01 <sup>**</sup>	권위존중	3.61	(1.39)	3.36	(1.44)	0.02 <sup>*</sup>
인정있는 사회	5.39	(1.15)	5.34	(1.10)	0.49 <sup>***</sup>	여성정조	3.58	(1.75)	3.11	(1.76)	0.00 <sup>***</sup>
인륜도덕	5.37	(1.15)	5.16	(1.22)	0.01 <sup>**</sup>	주위사람의식	3.52	(1.37)	3.31	(1.27)	0.03 <sup>*</sup>
우정	5.36	(1.12)	5.13	(1.21)	0.01 <sup>**</sup>	지위추구	3.51	(1.43)	3.41	(1.49)	0.34 <sup>*</sup>
용기	5.34	(1.10)	5.29	(1.15)	0.47 <sup>†</sup>	관혼상제	3.43	(1.42)	3.17	(1.33)	0.01 <sup>**</sup>
청렴결백	5.33	(1.25)	5.12	(1.35)	0.02 <sup>*</sup>	명성추구	3.43	(1.36)	3.14	(1.32)	0.00 <sup>***</sup>
가족 돌보기	5.33	(1.21)	5.17	(1.21)	0.08 <sup>†</sup>	타인에 신경쓴다	3.42	(1.45)	3.10	(1.30)	0.00 <sup>***</sup>
개인자유	5.32	(1.30)	5.14	(1.29)	0.04 <sup>*</sup>	치녀순결	3.39	(1.82)	3.02	(1.86)	0.00 <sup>***</sup>
결단력	5.32	(1.13)	5.14	(1.17)	0.02 <sup>**</sup>	순종	3.39	(1.38)	3.11	(1.44)	0.01 <sup>**</sup>
노인공경	5.32	(1.18)	5.10	(1.26)	0.01 <sup>**</sup>	위엄	3.21	(1.41)	2.94	(1.21)	0.00 <sup>***</sup>
인격도야	5.30	(1.25)	5.08	(1.23)	0.01 <sup>**</sup>	의례적 인간관계	3.16	(1.39)	2.96	(1.34)	0.03 <sup>*</sup>
독립심	5.30	(1.17)	5.11	(1.28)	0.03 <sup>*</sup>	가문존중	3.12	(1.50)	2.90	(1.50)	0.04 <sup>*</sup>
도덕규범	5.29	(1.17)	5.04	(1.21)	0.00 <sup>***</sup>	명분중시	3.07	(1.37)	2.82	(1.36)	0.01 <sup>**</sup>
윤리	5.28	(1.23)	5.05	(1.18)	0.01 <sup>**</sup>	가부장제도	3.05	(1.33)	2.62	(1.36)	0.00 <sup>***</sup>
스승존경	5.28	(1.23)	5.12	(1.18)	0.05 <sup>*</sup>	체면존중	3.04	(1.36)	2.70	(1.29)	0.00 <sup>***</sup>
인간도리	5.27	(1.23)	5.06	(1.25)	0.02 <sup>*</sup>	상사에 복종	2.98	(1.28)	2.63	(1.20)	0.00 <sup>***</sup>
공손한 언행	5.25	(1.13)	5.03	(1.21)	0.01 <sup>**</sup>	체면	2.93	(1.32)	2.63	(1.30)	0.00 <sup>***</sup>
예의바르다	5.22	(1.17)	5.01	(1.18)	0.01 <sup>**</sup>	동조행동	2.91	(1.40)	2.76	(1.21)	0.09 <sup>†</sup>
예절	5.22	(1.15)	5.02	(1.18)	0.02 <sup>*</sup>	보수성	2.81	(1.16)	2.67	(1.16)	0.09 <sup>†</sup>
관용	5.21	(1.23)	5.02	(1.25)	0.03 <sup>†</sup>	호주제도	2.76	(1.44)	2.23	(1.38)	0.00 <sup>***</sup>
마음수양	5.19	(1.19)	4.99	(1.33)	0.03 <sup>*</sup>	장례매장제도	2.75	(1.42)	2.34	(1.26)	0.00 <sup>***</sup>
경노정신	5.17	(1.21)	4.93	(1.35)	0.01 <sup>**</sup>	보수주의	2.68	(1.19)	2.53	(1.15)	0.08 <sup>†</sup>
부끄러운 일 알기	5.16	(1.38)	4.98	(1.39)	0.08 <sup>†</sup>	한	2.67	(1.31)	2.39	(1.31)	0.00 <sup>***</sup>
자기규율	5.12	(1.31)	5.02	(1.28)	0.45 <sup>†</sup>	권력추구	2.66	(1.36)	2.49	(1.24)	0.06 <sup>†</sup>
윗사람 공경	5.08	(1.21)	4.85	(1.28)	0.01 <sup>**</sup>	인사치레	2.66	(1.38)	2.42	(1.26)	0.01 <sup>**</sup>
충효사상	5.08	(1.34)	4.78	(1.33)	0.00 <sup>***</sup>	암기교육	2.56	(1.25)	2.56	(1.16)	0.99 <sup>**</sup>
권선징악	5.05	(1.31)	4.84	(1.32)	0.02 <sup>*</sup>	고지식하다	2.52	(1.25)	2.29	(1.11)	0.01 <sup>**</sup>
부부백년해로	4.92	(1.56)	4.65	(1.56)	0.01 <sup>**</sup>	아들상속	2.44	(1.38)	1.96	(1.23)	0.00 <sup>***</sup>
지식교육	4.79	(1.18)	4.64	(1.24)	0.08 <sup>†</sup>	장남상속	2.39	(1.27)	2.00	(1.17)	0.00 <sup>***</sup>
학문장려	4.77	(1.21)	4.52	(1.24)	0.01 <sup>**</sup>	관료주의	2.33	(1.24)	2.19	(1.08)	0.09 <sup>†</sup>
정이가 많다	4.76	(1.25)	4.56	(1.24)	0.02 <sup>*</sup>	세대갈등	2.30	(1.28)	2.14	(1.10)	0.06 <sup>***</sup>
자녀부양	4.74	(1.40)	4.54	(1.40)	0.04 <sup>*</sup>	분파경향	1.98	(1.19)	1.78	(1.00)	0.01 <sup>**</sup>
오류	4.67	(1.38)	4.37	(1.39)	0.00 <sup>***</sup>	평계	1.96	(1.20)	1.77	(1.00)	0.01 <sup>**</sup>
지조	4.61	(1.39)	4.31	(1.50)	0.00 <sup>***</sup>	남성지배	1.95	(1.25)	1.54	(0.98)	0.00 <sup>†</sup>
조강지처 보호	4.57	(1.59)	4.16	(1.69)	0.00 <sup>***</sup>	남아선호	1.93	(1.27)	1.60	(1.10)	0.00 <sup>***</sup>
항학열	4.48	(1.33)	4.29	(1.44)	0.06 <sup>†</sup>	천하지 않으면 냉담	1.86	(1.10)	1.69	(1.04)	0.03 <sup>*</sup>
명예존중	4.47	(1.38)	4.06	(1.36)	0.00 <sup>***</sup>	파벌만들기	1.68	(1.14)	1.49	(0.92)	0.01 <sup>*</sup>
전통존중	4.19	(1.23)	3.86	(1.33)	0.00 <sup>**</sup>	남존여비	1.67	(1.16)	1.47	(0.95)	0.01 <sup>**</sup>
아버지권위	4.19	(1.33)	3.77	(1.57)	0.00 <sup>***</sup>						

4.57), 자녀부양( $M = 4.74$ ), 경노정신( $M = 5.17$ ), 노인공경( $M = 5.32$ ), 오류( $M = 4.67$ ), 뒷사람 공경( $M = 5.08$ ), 스승존경( $M = 5.28$ ), 인륜도덕( $M = 5.37$ ), 충효사상( $M = 5.08$ ), 인간도리( $M = 5.27$ ), 지조( $M = 4.61$ ), 절개( $M = 4.03$ ), 명예존중( $M = 4.47$ ), 부끄러운 일 알기( $M = 5.16$ ), 윤리( $M = 5.28$ ), 성실성( $M = 5.66$ ), 예절( $M = 5.22$ ), 예의바르다( $M = 5.22$ ), 점잖은 예절( $M = 4.99$ ), 도덕성( $M = 5.56$ ), 도덕규범( $M = 5.29$ ), 청렴결백( $M = 5.33$ ), 권선징악( $M = 5.05$ ), 우정( $M = 5.36$ ), 진정한 우정( $M = 5.48$ ), 신의( $M = 5.40$ ), 인정있다( $M = 5.45$ ), 인격도야( $M = 5.30$ ), 인격완성( $M = 5.43$ ), 마음수양( $M = 5.19$ ), 의로움( $M = 5.53$ ), 학문중시( $M = 4.14$ ), 향학열( $M = 4.48$ ), 학문장려( $M = 4.77$ ), 지식교육( $M = 4.79$ ), 출세존중( $M = 4.47$ ), 개인자유( $M = 5.32$ ), 자유( $M = 5.65$ ), 독립심( $M = 5.30$ ), 결단력( $M = 5.32$ ), 관용( $M = 5.21$ ), 정이 많다( $M = 4.76$ ), 행동실천( $M = 5.41$ ), 전통존중( $M = 4.19$ ). 이 가치들 가운데 부모효도, 스승 존경, 윤리, 출세존중 등은 한국의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사회관계에서 전통적 당위로 여기는 가치들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남성이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한국사회에서 공동사회의 가치를 평정한 7점 척도에서 평정치가 4점 미만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부장제도( $M = 3.05$ ), 보수주의( $M = 2.68$ ), 조상제사( $M = 3.17$ ), 장남상속( $M = 2.39$ ), 남성지배( $M = 1.95$ ), 여성정절( $M = 3.81$ ), 여성정조( $M = 3.58$ ), 처녀순결( $M = 3.39$ ), 순결( $M = 3.82$ ), 남존여비( $M = 1.67$ ), 호주제도( $M = 2.76$ ), 남아선호( $M = 1.93$ ), 아들상속( $M = 2.44$ ), 보수성( $M = 2.81$ ), 고지식하다( $M = 2.52$ ), 가문존중( $M = 3.12$ ), 조상숭배( $M = 3.83$ ), 권위존중( $M = 3.61$ ), 관료주의( $M = 2.33$ ), 권력추구( $M = 2.66$ ), 상사에 복종( $M = 2.98$ ), 순종( $M = 3.39$ ), 위엄( $M = 3.21$ ), 동조행동( $M = 2.91$ ),

자기집단 결속( $M = 3.89$ ), 파벌만들기( $M = 1.68$ ), 분파경향( $M = 1.98$ ), 족벌관계( $M = 2.30$ ), 친하지 않으면 냉담( $M = 1.86$ ), 주위사람의식( $M = 3.52$ ), 명분중시( $M = 3.07$ ), 체면존중( $M = 3.04$ ), 체면( $M = 2.93$ ), 의례적 인간관계( $M = 3.16$ ), 의식/의례 지키기( $M = 3.74$ ), 장례매장제도( $M = 2.75$ ), 관혼상제( $M = 3.43$ ), 인사치레( $M = 2.66$ ), 성묘( $M = 3.70$ ), 타인에 신경쓴다( $M = 3.42$ ), 입신양명( $M = 3.90$ ), 명성추구( $M = 3.43$ ), 핑계( $M = 1.96$ ), 세대갈등( $M = 2.30$ ), 한( $M = 2.67$ ), 예절로 사람을 평가하다( $M = 3.67$ ). 이 결과 가운데 남녀차별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많았다.

장차 바람직한 공동사회에서 추구하거나 지양해야 할 두 범주로 구분해보았을 때 흥미로운 점은, 여성들이 더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 가운데 ‘지조’와 ‘절개’가 포함된 반면에 남성들이 더 억제해야 할 가치로서 여성정절, 여성정조, 처녀순결, 순결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남성들의 평균점수가 여성들의 평균점수보다 더 높은 이 가치들은 언뜻 보기에 유사하지만 추구해야 할 가치거나 억제해야 할 가치로 나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남성이 여성의 순결이나 정절에 대해서 지니는 가치관의 혼란이다. 미래에 지향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에는 남녀 모두 동의하지만, 남성의 경우에 여성보다 지조와 절개를 더 선호하므로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남성들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순결이나 정절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현실의 이중기준을 타파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여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성의 성적 순결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반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둘째, ‘지조’나 ‘절개’가 성적 순결 이외에 정신

적으로 깨끗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조’나 ‘절개’는 결혼과 같이 심리적 투입이 높은 친밀한 관계의 상태에서 심리적, 신체적 순결을 나타낸다고 보면 결혼 후의 순결을 혼전 순결보다 더 중요시하는 남성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 측면에서 여성정절, 여성정조, 처녀순결, 순결은 여성에게 적용되는 가치로, 절개나 지조는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치로 보는 공통점이 있다.

#### 성별에 따른 한국문화와 공동사회의 가치의 순위의 차이

다음으로 한국문화의 특징과 공동사회 가치들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요소들에서 과연 성별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현재 한국문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들에 관한 인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문화를 특징짓는다고 본 중요한 문항들을 가려내었다. 이 가운데 상위 20위까지에 해당하는 문항을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20위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이 합치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교육열, 자녀교육, 자식사랑, 자녀보호까지 1위에서 4위까지는 순위까지 같았다. 그밖에 혈육의식, 부모의 희생, 인간사랑, 사회적 지위추구, 암기교육, 출세존중, 지위추구, 체면, 이는 사람 봐주기, 학력차별, 지식교육, 연고주의의 측면에서 양성이 일관되게 20위 내의 순위를 매겼다. 반면 20위라는 기준에서 양성간에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로는 여성의 경우에 자녀부양, 학문중시, 남아선호, 타인에 신경쓰는, 향학열이 20위 내에 들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정이 많다, 이

익추구, 권력추구, 가정의 안녕이 20위 내에 들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문화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에 상당한 합의 부분이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부양, 남아선호 등과 같은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현재까지 한국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따른 현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요소들이 공동사회의 가치로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남녀에 따라서 20위까지 중요한 문항들로 가려내어서 살펴보았다(표 4). 먼저 20위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합의하는 내용들을 찾아보자. 여성과 남성은 모두 건강, 행복, 생명존중, 사랑, 가정의 안정, 화목, 신뢰성, 인간존중, 부모존경, 함께 잘사는 세상, 창조성, 신용, 양심, 평화, 인간다움, 인권으로, 공동 20위까지 항목들 가운데 16개 가치들의 중요성에 합치하여 공동의 목표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유, 정직, 진실하다, 부모효도, 성실성을 중요하게 보았으나, 이와 달리 여성은 자기개발, 인간성, 봉사, 화목, 지혜를 장래 한국의 공동사회에 더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하여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한덕웅과 이경성(2003ab)의 연구에서는 최근에 남성이 여성과 모두 현실 사회문제와 연결되는 사회중심의 가치보다 개인 중심의 가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현상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미래의 공동사회에 관한 가치에서도 남성과 여성 간에 상당한 합의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 가치들은 대부분 남성이나 여성의 성별에 따른 이해와 관련이 없는 가치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서 중요한 가치에서 차이를 보인 요소들 가운데 장래 공동사회의 가치에

표 4. 한국문화조사와 공동사회 가치 조사 상위 20위

한국문화						공동 사회 가치					
순	남 자	순	여 자	순	남 자	순	여 자	순	남 자	순	여 자
위	문 항	평 균	위	문 항	평 균	위	문 항	평 균	위	문 항	평 균
1	교육열	6.27	1	교육열	6.33	1	건강	6.04	1	건강	6.08
2	자녀교육	6.05	2	자녀교육	6.09	2	생명존중	5.95	2	행복	6.06
3	자식사랑	5.95	3	자식사랑	6.01	3	사랑	5.88	3	생명존중	6.04
4	자녀보호	5.91	4	자녀보호	5.96	4	가정의 안정	5.86	4	사랑	5.89
5	혈육의식	5.73	5	부모의 희생	5.69	5	부모존경	5.86	5	가정의 안정	5.87
6	인간사랑	5.73	6	사회적 지위 추구	5.65	6	행복	5.85	6	가정의 화목	5.85
7	사회적 지위 추구	5.64	6	혈육의식	5.65	7	인간존중	5.83	7	신뢰성	5.80
8	부모의 희생	5.64	6	암기교육	5.65	8	가정의 화목	5.78	8	인간존중	5.77
9	암기교육	5.56	9	출세존중	5.62	9	신용	5.76	9	부모존경	5.72
10	지위추구	5.54	10	지위추구	5.55	10	창조성	5.73	10	함께살사는세상	5.69
11	출세존중	5.52	11	체면	5.51	11	양심	5.72	11	자기개발	5.68
12	아는사람봐주기	5.51	12	아는사람봐주기	5.45	12	신뢰성	5.68	11	창조성	5.68
13	체면	5.48	13	학력차별	5.43	12	함께살사는세상	5.68	13	신용	5.67
14	정이 많다	5.43	14	자녀부양	5.39	14	성실성	5.66	14	양심	5.65
14	이익 추구	5.43	15	인간사랑	5.38	15	평화	5.65	15	인간성	5.63
16	지식교육	5.39	16	학문중시	5.37	15	자유	5.65	16	평화	5.62
17	학력차별	5.38	17	지식교육	5.36	15	인권	5.65	16	인간다움	5.62
17	연고주의	5.38	17	남아선호	5.36	18	인간다움	5.64	18	봉사	5.60
17	권력추구	5.38	17	타인에신경쓴다	5.36	18	정직	5.64	19	화목	5.58
20	가정의 안녕	5.37	20	연고주의	5.32	20	진실하다	5.63	20	지혜	5.57
			20	향학열	5.32	20	부모효도	5.63	20	인권	5.57

서 남성은 부모효도를 강조하여 가족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감이 여성보다 높음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자기개발을 중요하게 보아서 사회적응에 요구되는 자기 자질의 연마에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여성들이 장래 공동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하

여 자기성장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이 결과들은 장차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성별에 따라서 평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친밀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합의와 남성과 여성이 지향하거나 억제할 특성들로 지적인 내용들

한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앞에서 한국문화의 중요한 요소와 장래 한국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다룬 두 연구의 결과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현재 한국문화의 특징으로는 중요성이 낮지만 한국의 미래 공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의 장래 공동사회 가치에서 5점을 넘으면서 한국문화 조사에서는 3점이 안되는 문항들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한국문화 조사에서 3점이 안되는 문항은 한 문항도 없었다. 이에 따라 각 성별로 한국문화 문항들에서보다 공동사회 가치 문항들에서 2점이상이 높게 차이가 나는 문항을 살펴보았다. 이에 해당되는 세 요소들이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부정부패배척(공동사회가치, 이후 ‘공동’으로 표시,  $M = 5.56$ , 한국문화조사, 이후 ‘한국’으로 표시,  $M = 3.60$ ), 자연보호(공동  $M = 5.44$ , 한국  $M = 3.43$ ), 환경보호(공동  $M = 5.46$ , 한국  $M = 3.49$ )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연보호(공동  $M = 5.44$ , 한국  $M = 3.38$ ), 환경보호(공동  $M = 5.47$ , 한국  $M = 3.51$ )이었다. 따라서 미래에 살기 좋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요소들 가운데 자연보호와 환경보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합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미래에 한국에서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 한국사회나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 억제해야 할 요소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합의

하는 바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알아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에 노력할지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서 각 성별로 미래의 공동사회 가치로는 평균이 3점이 안되지만 한국문화 조사에서 5점을 초과하는 문항을 찾아보았다.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항들뿐만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 가운데 한쪽 성별에만 해당되는 문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49개 문항이 이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표 5에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먼저 한국문화의 특성이나 공동사회의 가치에서 일관되게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문항들은 모두 23개로서 전체 49개 가운데 약 47%였다. 이 문항들은 출세존중, 계급상상, 상하서열의식, 신분 중시, 빈부차별, 상하위계, 상하차별, 직업차별, 연고주의, 집단주의, 아는 사람 봐 주기, 공사혼동, 눈치보기, 남의 탓하기, 허위의식, 허세, 사치풍조, 허례허식, 과소비, 물질주의, 암기교육, 적당주의, 성급하다였다. 이 내용을 보면 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지위지향성, 집단주의, 물질주의에 관련된 특성들에 있어서 남녀가 모두 경계의 뜻을 표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데 합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문화나 공동사회의 가치에서 남녀 차이가 나타난 문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문항들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7점 척도에서 평균이 5점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평가하고, 동시에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는 3점에 못 미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된 문항들이다. 그러므로 이 문항들을 가려내면 남성과 여성이 현재 한국문화에서 우세하지만 장차 억제해야 할 요소들로 보는 데는 합의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이 전체 하에서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서 차이를 보

표 5. 성별에 따른 합의와 지향하거나 억제해야 할 한국사회의 가치들의 성별차이

문항	남녀 유사 문항				문항	남녀 차이 문항			
	한국문화		공동사회가치			한국문화		공동사회가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출세존중	5.52	5.62	2.87	2.85	가부장제도	5.08	5.28**	3.05***	2.62
연교주의	5.38	5.32	2.14	2.25	보수주의	4.89	5.03 <sup>†</sup>	2.68 <sup>†</sup>	2.53
집단주의	5.07	4.97	2.72	2.82	남성지배	4.74	5.04***	1.95***	1.54
허례허식	5.18	5.19	1.62	1.62	세대갈등	4.93	5.10*	2.30 <sup>†</sup>	2.14
계급사상	5.10	5.12	2.02	1.92	남녀차별	4.79	5.19***	1.73	1.61
상하서열의식	5.04	5.02	2.57	2.44	집보기	4.68	4.97***	1.83	1.85
남의 탓하기	4.98	4.99	1.56	1.49	장남상속	5.02	4.98	2.39***	2.00
신분 중시	5.18	5.14	1.99	1.94	명분중시	5.23	5.22	3.07**	2.82
빈부차별	5.14	5.18	1.76	1.69	체면존중	5.22	5.22	3.04***	2.70
과소비	5.09	4.99	1.64	1.65	관료주의	5.23	5.12	2.33 <sup>†</sup>	2.19
상하위계	5.25	5.18	2.92	2.78	권력추구	5.38	5.28	2.66 <sup>†</sup>	2.49
물질주의	5.24	5.13	2.45	2.37	남아선호	5.29	5.36	1.93***	1.60
이논사람뵈주기	5.51	5.45	2.28	2.16	보수성	4.97	4.95	2.81 <sup>†</sup>	2.67
눈치보기	5.17	5.15	2.26	2.35	아들상속	5.13	5.07	2.44***	1.96
허위의식	5.06	5.00	1.61	1.65	핑계	5.02	4.99	1.96**	1.77
공사혼동	5.19	5.06	1.85	1.88	체면	5.48	5.51	2.93***	2.63
직업차별	5.29	5.23	1.74	1.83	가문존중	4.95	5.04	3.12*	2.90
성급하다	5.19	5.13	2.15	2.01	동조행동	4.97	4.99	2.91 <sup>†</sup>	2.76
상하차별	5.06	5.08	1.86	1.74	인사치레	5.28	5.26	2.66**	2.42
허세	5.06	5.07	1.70	1.60	분파경향	4.95	4.97	1.98**	1.78
암기교육	5.56	5.65	2.56	2.56	호주제도	5.18	5.23	2.76***	2.23
적당주의	5.10	5.17	1.86	1.79	죽벌관계	5.24	5.26	2.30*	2.12
사치풍조	5.01	5.05	1.64	1.59	파벌만들기	4.97	4.88	1.68**	1.49
					집단이기주의	5.21 <sup>†</sup>	5.07	1.71	1.74
					장례매장제도	5.14**	4.92	2.75***	2.34
					학력차별	5.38	5.43	1.87	2.02 <sup>†</sup>

1) 각 성별 내에서 한국문화조사에서 평균 4.95 이상이면서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도 3.05 이하에 해당하는 총 49개 문항

2)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 평균값이 높은 쪽에 차이가 유의함을 나타내는 부호를 표시함.

3) +  $p < .01$ , \*  $p < .01$ , \*\*  $p < .01$ , \*\*\*  $p < .01$

인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한국문화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높지만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는 남성

이 높은 평가를 보인 문항들로 가부장제도, 보수

주의, 남성지배, 세대갈등의 모두 4개 문항이 있었다. 이 결과에서 여성들이 현재 이 요소들이 한국문화에서 우세하지만 장래 공동사회 가치로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내용 가운데 남성지배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녀차별과 점보기 문항에서 한국문화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반응을 보였지만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가운데 남녀차별에 대해서 여성들이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장래 공동사회에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인식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지만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반응을 보인 문항들은 모두 17개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장래 공동사회의 가치로서 장남상속, 남아선호, 아들상속, 호주제도, 가문존중, 보수성, 관료주의, 권력추구, 핑계, 체면, 체면존중, 명분중시, 동조행동, 인사치레, 분과경향, 파벌 만들기, 족벌관계를 높게 평가했다. 이 결과 가운데 장래 공동사회 가치로서 남성들이 장남상속이나 남아선호를 여성들보다 높게 평가한 결과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우세한 사회지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는 한국문화조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고, 장례매장제도에서는 한국문화조사와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 모두 남성의 점수가 여성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학력차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 다소 덜 나쁘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남녀차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논의하기로 한다. 공동사회의 가치를 평가한 반응을 보면 남녀 차이가 없이 1점

대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한국이 미래에 살기 좋은 공동사회가 되기 위하여 남녀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당위의 인식에는 남녀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익광고나 최근의 여성관련 법률 등을 통해서 남성들이 ‘남녀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많이 접촉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남녀차별이 현재 한국문화를 특징짓는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았다. 이 경향은 가부장제도, 보수주의, 남성지배, 세대갈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반응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미래에 한국을 살기 좋은 공동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남녀차별을 철폐해야 하는데는 동의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남녀차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부장제도, 남성지배, 장남상속, 남아선호, 아들상속, 가문존중, 호주제도 등에 대한 공동사회의 가치조사에서 남성의 평균은 3점에 가까운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이 요소들이 없어야 할 가치라는 데는 양성간에 합의하지만, 여성에 비해서 남성들이 단호하게 배척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서 상당한 마찰과 충돌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를 남성과 여성이 미래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동가치로 삼은 표 4의 내용들과 관련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강, 생명존중, 사랑, 가정의 안정, 행복 등은 성별을 초월하는 인류공통의 가치들이었으므로, 이 가치들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생활을 통

해서 핑계, 체면, 인사치레, 파벌 만들기 등을 경험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미래의 공동사회 가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점수가 높았을 수 있다. 이 가치들도 역시 일반적인 사회의 관념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들이다. 그러므로 장래 바람직한 공동 사회를 구축하려면 특히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 현상을 억제하는 활동들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력차별의 경우에는 없어져야 할 가치로 인식되었지만 미래 공동사회의 가치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허용적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여성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국문화의 특징과 공동사회의 가치범주에 따른 성별의 차이

한편 한국문화와 공동사회의 가치에 포함된 특징들을 정리하여 개념들을 절약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한덕웅, 2003ab). 이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한국문화나 공동가치의 기본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한국문화와 공동가치의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5점 이상의 평균값을 지닌 각각 87개와 122개 항목들만 가려내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1요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군집에서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한 개였고 각각 고유치는 1.10~7.39였다. 이 분석의 결과로부터 한국문화조사에서 총 15개 군집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이 범주들은 각각 가정/가족, 조상숭배, 남녀관계, 교육열, 인정, 연고/집단주의, 명성추구, 보수성, 신분차별, 상하위계, 물질주의, 핑계, 타인의식, 허례허식, 체면존중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와 공동사회 가치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를 요약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추출된 각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들로부터 평균을 산출하고 남녀 차이를 알아보았다. 중요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인정, 정, 우정, 인간관계 중시 등이 포함된 '인정'의 범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남성  $M = 5.20$ , 여성  $M = 5.08$ ;  $F = 4.34$ ,  $p < .05$ ). 이 결과는 현재 남성들이 한국문화에서 인정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여성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세부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에서 정이나 인간관계 중시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우정, 인정있다 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우정이나 의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그 결과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인정'이 한국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해서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남녀관계, 보수성, 타인의식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녀관계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장남상속, 아들상속, 남아선호, 호주제도, 가부장제도, 아버지 권위, 남녀차별 문항이었다. 이 결과에서 남녀불평등에 대한 반응은 한국문화에서 여성들이 낮은 지위를 더 많이 경험하므로 남녀불평등에 대한 특출한 인식이 높아져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남성  $M = 5.04$ , 여성  $M = 5.16$ ;  $F = 3.30$ ,  $p < .07$ ). 보수성에 해당하는 문항도 남녀에 따른 차이의 추세를 보였는데(남성  $M = 4.93$ , 여성  $M = 5.03$ ;  $F = 2.85$ ,  $p < .09$ ), 보수주의, 보수성, 세대갈등으로 구성되는 이 범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이 높았다. 이 경우에도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현 사회의 보수성으로 인해서 남녀 차이가 심화되었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식의 범주에는



주위사람 의식, 타인에 신경쓴다, 눈치보기, 동조행동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성( $M = 5.20$ )이 남성( $M = 5.11$ )보다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F = 2.72, p < .10$ ).

한편 한덕웅(2003c)의 연구에서와 같이 공동사회의 가치는 21개 범주들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각각 자연친화, 자기수양, 지성, 근면, 창의성, 주체성, 신뢰, 우정, 타인이해, 사랑, 정의, 인권, 평화, 가정, 정서안정, 행복, 효도, 경노, 예의, 인간성, 도덕성의 범주들이었다. 이 가운데 우정(남성  $M = 5.46$ , 여성  $M = 5.27$ ;  $F = 6.62, p < .01$ ), 타인이해(남성  $M = 5.27$ , 여성  $M = 5.14$ ;  $F = 3.70, p < .05$ ), 정의(남성  $M = 5.43$ , 여성  $M = 5.30$ ;  $F = 4.41, p < .04$ ), 효도(남성  $M = 5.70$ , 여성  $M = 5.52$ ;  $F = 6.26, p < .01$ ), 경노(남성  $M = 5.21$ , 여성  $M = 5.00$ ;  $F = 8.94, p < .00$ ), 예의(남성  $M = 5.19$ , 여성  $M = 4.99$ ;  $F = 8.89, p < .00$ ), 도덕성(남성  $M = 5.35$ , 여성  $M = 5.13$ ;  $F = 10.54, p < .00$ )의 경우에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하다고 반응하여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근면(남성  $M = 5.56$ , 여성  $M = 5.45$ ;  $F = 3.04, p < .09$ ), 주체성(남성  $M = 5.32$ , 여성  $M = 5.19$ ;  $F = 3.34, p < .07$ ), 인권(남성  $M = 5.49$ , 여성  $M = 5.37$ ;  $F = 2.91, p < .09$ )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요성 평정에서 점수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자연친화, 자기수양, 지성, 창의성, 신뢰, 사랑, 평화, 가정, 정서안정, 행복, 인간성의 범주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동사회의 가치들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양성의 조화와 양성평등에 긴요하다고 할 수 있는 타인이해, 정의, 인권, 도덕성에서 남성이 점수가 높다는 사실은, 미래 한국사회에서 남녀동등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로 보면 양성간 타협의 기반이 된다는 의미에서

청신호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남녀차별을 해소하려는 목표와 실행과정이 ‘타인이해, 정의, 인권, 도덕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장차 양성동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서, 한국사회에서 타인이해, 정의, 인권,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이를 위하여 남성과 여성간에 차별이 없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도, 호주제도, 남아선호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남성에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특징과 미래에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지향해야 할 가치들에 관하여 여성과 남성이 합의하는 바와 합치되지 못하는 점을 알아보았다. 남녀차별이 사회문제이며 여성의 지위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대적인 남녀 집단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양성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두고 볼 때 이 현상이 나타나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는 부분에 근거를 두고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타협해야 할지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 본 연구의 현실적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현재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미래 공동사회가치에서 남성과 여성이 합의하는 부분을 알아낸 데 의의가 있다. 양성동등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이 합의한 요소들 가운데 특히 ‘남녀차별’에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이 지양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의 집단간 관계가 부각되면 남녀의 내집단 이해에 관련되므로 참여한 집단간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인간’이고, ‘한국인’이며, 현재 공통으로 인식하는 미래 목표

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합의하는지 밝혔으므로 공통의 관심에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둘째, 양성이 서로 노력할 부분들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과 비교하여 체면, 명분중시, 동조, 인사치레, 장남상속, 남아선호, 아들상속, 가문존중, 호주제도 등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여서 장래에도 남녀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남녀차별의 경우에는 미래 공동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었지만, 호주제도, 아들상속, 남아선호 등에서는 여전히 남녀 차이를 보이므로 함께 사는 공동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문화의 특성과 공동사회의 가치들을 큰 범주들로 묶었을 때 공동사회의 가치에서 남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인권, 정의, 도덕성 등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필요한 가치로 인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특징들은 남녀차별과는 상반되는 특징들이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할 때 이점을 부각시켜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연구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와 관련되는 가치, 신념, 성격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남녀 관계에 따른 가치, 신념, 행동에 국한되는 요소들을 더욱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래 연구에서는 성역할이나 남녀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치, 신념, 행동 등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시켜서 현재 한국문화의 특징과 장래의 공동사회 가치에서 나타나는 한국 남녀의 인식 차이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래 연구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별 차이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남녀간의 관계에 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연령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살기 좋은 공동사회를 구현하는데 시사점을 얻으려면 장차 성별 차이와 연령 차이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금미·한영석 (2003). 남성의 양성평등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64, 5-44.

윤태림 (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 동방도서.

이규태 (1991). 한국인의 의식구조. 서울: 신원문화사.

차재호 (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덕웅 (1992). 성격특성 용어의 사용빈도, 호의도 및 사회적 바람직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147-171.

한덕웅 (1994). 한국의 사회문제에 관한 국민의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20-53.

한덕웅 (2002). 집단행동이론. 시그마프레스.

한덕웅 (2002). 한국 문화는 유교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54-260.

한덕웅 (2003a).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국문화의 기본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65-367.

한덕웅 (2003b). 장래 한국의 공동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들.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68-370.

- 한덕웅 (2003c).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한덕웅 · 강혜자 (2000).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지속과 변화: 1994년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7-38.
- 한덕웅 · 이경성 (2003a). 한국인의 인생관으로 본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49-67.
- 한덕웅 · 이경성 (2003b). Rokeach 척도로 측정된 지난 20년 동안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 변화: 30년간 비교, 성균관대학교 학생지도연구, 13(1), 135-149.
- 현상윤 (1948/1982). 조선유학사. 서울: 현암사.
- Bond, M. H. (1987). *Chinese culture connection*. HongKong: Hong Kong Univ. Press.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The gender consensus and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common social values**

**Doug-Woong Hahn**

**Keum-Mi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ensus and differences of in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common social values according to gender.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research were total 1,646 adults living in the six regions. The significant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nter group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men, and then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s of gender equality in Korean Society and the important topics for the future study were mentioned.

*Keywords : gender, women, Korean culture, common social values, Confucianism, gender equality*